

장애인 복지 정책 다각화 ‘일류도시 순천’ 실현

LOCAL

2025년 5월 20일 화요일

예산 500억 투입...일자리·자립·돌봄 지원

사각지대 없는 두터운 사회안전망 등 구축

순천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 복한 ‘일류도시 순천’을 위해 장애인 복지 정책 다각화에 나섰다.

19일 순천시에 따르면 5월 현재 지역 내 장애인 수는 총 1만5406명이며, 이들 을 위한 복지 예산은 총 501억6600만원 규모다.

이를 위해 시는 이동권 보장부터 자립 지원, 일자리 제공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복지망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소득 보장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 진 중이다. 시는 올해 총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 직업재활시설 등 6개 분야 367명에게 일 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월 56만1000원 에서 최대 209만6000원까지 임금을 지급 한다.

또 시는 중장기적인 일자리 확대를 위 해 하반기 중 장애인 일자리 육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순천형 장애 인 일자리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 인 자립지원주택’도 운영 중이다. 주거공 간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다양한 사회활 동과 일상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있다.

아울러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는 24시간 개별, 주간개별, 주간그룹 등 총 3가지 형태의 통합돌봄서비스를 1대 1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발달장 애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장애인들의 이동·접근성 강화로 사회 참여 기회 보장에서 앞장서고 있다.

시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과 사회 참 여 확대를 위해 바닥면적 300㎡ 미만의 식당, 카페, 이마용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이동경사로 설치비를 최대 100만원 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 인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 해, 2026년 1월까지 발생하는 사고에 대 해 본인부담금 5만원을 제외하고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장애인 위생용품비 지원 품 목을 기존 5종에서 7종으로 확대하고, 지 급 방식도 월 5만원에서 분기 15만원으로 변경 지원한다.

기존 지원품목인 기저귀, 패드, 물티

슈, 위생장갑, 깔개매트에 마스크와 향균 물비누를 추가했으며, 외출이 어려운 장 애인의 편의를 고려해 월별 지급 방식에 서 분기별 지급 방식으로 전환했다.

지원 대상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2세 이 상 64세 이하의 배변·배뇨에 어려움이 있 는 심한 장애인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돌봄과 자립지원 등 일상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촘촘한 복 지정책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두터운 사 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장애인 누구 나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순 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함평 ‘만원세컨하우스’

30일까지 참여자 모집

함평군은 빈집 리모델링 또는 철거 후 이동식주택 설치를 지원하는 만원 세컨하 우스 사업에 참여할 대상자 모집이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빈집을 대 상으로 하며, 리모델링 또는 철거 후 이동 식 주택을 설치한 뒤 7년간 군에 무상 임 대하는 조건으로 추진된다.

지원 항목은 주택 개·보수(창호, 도배, 장판, 방수 등), 이동식 주택 구입 및 설치 등이며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군은 빈집 소유자에게는 자산가치 상승 과 관리 부담 완화 등 편익을 제공하고, 인구 유입을 위해 귀농·귀촌인에게는 월 1만원에 임시 거처를 제공해 초기 정착 비용을 낮추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한다 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활 용도를 높이고 지역 인구 유입 기반을 마 련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빈집 소유자들 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여수, 배수지 물탱크 청소

내달 18일까지 42곳 대상

여수시는 깨끗한 수도물 공급을 위해 다음달 18일까지 배수지·기압장 물탱크 42곳을 대상으로 청소·소독을 실시한다 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번엔 시설물을 순차적으로 청소 ·소독하고 점검·보수를 병행해 더욱 깨끗 하고 안전한 급수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 침이다.

물탱크가 2개인 배수지는 청소와 급수를 교대로 진행하나 물탱크가 1개인 일부 배 수지의 경우 단수가 불가피함에 따라 13개 지역 약 4360세대가 단수될 예정이다.

5월 단수 일정은 20일 현암도서관 일 원, 28일 두암택지지구 일원, 29일 성두·계동마을과 향일암배표소 일원, 30일 진 두·상하동마을 일원 등이다.

6월 단수 일정은 5일 대교별리지리발라·오천동·만성리 일원, 9일 자산공원 일원, 10일 돌곡마을·구봉중학교 일원, 11일 무 지개아파트 건너편 주택단지 일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물 사용이 적은 시간대에 최소한의 시간으로 단수를 시행할 예정이 지만 비상용 물을 충분히 마련해 놓는 등 철저히 대비해 주길 당부드린다”며 “깨끗 한 식수 공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광양만 블루카본 조성...연안 생태계 복원

시, 여수해경·포스코이앤씨·월드비전과 업무협약

광양시는 최근 시청 만남실에서 여수 해양경찰서, 포스코이앤씨, 월드비전과 함께 ‘광양만 블루카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블루카본(Blue Carbon)은 갯벌, 잘 피, 염생식물 등 해양 및 연안 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탄소를 의미하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자연 기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협약은 광양만 연안의 생태계 복 원과 탄소 저감을 위한 공동 실천 기반 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블루카본 조성을 위한 행정·기술적 협력, 연안 생

태계 복원 및 관리, 시민 참여 확대를 위 한 홍보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 동 노력하기로 했다.

앞서 광양시는 지난 3월 진월면 전소 리 섬진강 하구 일원에 염생식물 70kg을 파종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조성 지역을 광양 연안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성된 광양시 자원순환과장은 “협약 은 연안 생태계 보전과 블루카본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이다”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 기반을 만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광양시는 최근 시청 만남실에서 여수해양경찰서, 포스코이앤씨, 월드비전과 함께 ‘광양만 블루카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흥군의회 “흡연피해 실질적 배상해야” 장흥, 마음 치유 ‘노벨 성장 프로젝트’ 추진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채택

고흥군의회는 최근 열린 제336회 임시 회 제 2차 본회의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 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제조사의 사 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고 19일 밝혔다.

김미경 군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 제 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국 가 재정 부담을 더 이상 개인과 사회가 떠안아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 발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담배는 폐암 과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등 중증 질 환의 주요 원인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

다”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부 담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현행 법과 제도 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 했다.

그러면서 “모든 담배 제품에 포함된 유 해 성분과 그 결함의 위험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며, 흡 연 피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책임을 이행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의회는 정부에 대해 WHO 담배규제 기본협약(FCTC)의 국제 기준을 충실히 반영해 금연 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담배 로 인한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 청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장흥군은 오는 9월까지 임신부와 24개 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마음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진 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장흥통합의료병 원 마음건강치유센터 등 2곳에서 열린다.

마음 치유프로그램은 ‘자유부인 힐링 타임’을 비롯한 4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 됐다.

이번 사업은 ‘아이가 자란다·장흥이 잘 한다’를 모토로 ‘노벨 성장 프로젝트’ 추 진계획을 기획해 운영 중인 사업으로, 태 교부터 육아까지 문화감성과 마음건강 치



유를 통해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임 신과 출산가정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감성문화와 마음 치유를 통한 ‘자유부인 힐링타임’, 감성을 담은 동화와 융합한 ‘오감 놀이터’, 임신 기 정서적 안정과 문화 감성 태교를 위한 ‘노벨맘 힐링테라피’, 문화와 놀이를 접목

해 다문화와 임신부 가정을 위한 ‘다함께 다 정한 문화육아’ 등 4가지로 다양하고 풍 성하게 준비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은 장흥군에 거 주하는 임신부 및 2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건강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산모와 영유아 건강 체크, 수유 및 양육 교육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김성 군수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장 흥군을 만들기 위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며 “출산 가정 부 모들이 사회적·정서적으로 지지받는 문 화가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 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 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

직원과 고객, 더불어 성장하는
주식회사 노아

시설물유지관리, 건축공사, 금속창공사, 도장공사, 방수공사

인중 및 특이 공방기반 실적

- 목포시 수영장물정비단 부분보수
- 전남체육고등학교 웨이트트레이닝실 벽체보수공사
- 목포교육지원청 유치원교실 비파보수공사
- 신안교육지원청 장산초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 개선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심함배수정의 보수공사
- 전남문화산업진흥원 스타트업 보육실 인테리어공사
- 여수지방해양안전청 거문도등대 태풍피해 복구공사
- 무안군청 삼향교 복용교 교량난간 정비공사

노아건설(주)
전남 목포시 연산백령로 1번길 51 ☎ 061-285-6100

목상방수공사

물탱크도장공사

화장실공사